

다시 주목받는 '비자금 조성용' 전두환 컬렉션

전우원 SNS 폭로 이어 광주 방문 "몇십억 예술작품... 돈세탁 악용" 2014년 추징금 환수 위해 경매 지역출신 김환기·천경자 작품도

전두환 일가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수집해 온 고가의 미술품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입을 통해서다.

그는 SNS를 통해 "연희동 사저에 추징을 피해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 몇십억 예술작품을 가족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를 이어가던 중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지난 29일 광주에 도착했다.

전두환은 1995년 내란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공매 대금을 비롯해 여러 미술품을 확보했다.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에서 경매를 위탁했고 지난 2014년 이른바 '전두환 컬렉션'이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시 경매는 낙찰률 100%를 기록했으며 낙찰 총액은 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경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전부 국고

로 환수됐다.

검찰은 미술품 관련 환수금액 예상치를 100억으로 예상했지만 완성작이 아닌 목판이나 위작들도 상당해 목표 금액만큼은 환수되지 못했다.

경매 최고가는 전두환 자택에 걸려 있던 이대원 화백의 1987년작 '농원'으로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연못과 들판, 산과 나무가 자리한 농원의 전경이 분홍빛 하늘로 묘사됐는데 작가 특유의 필치와 화사한 색채감이 잘 어우러져 미술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전남 출신 작가 김환기, 천경자 등 작품도 경매품으로 등장했다. 신안출신 김환기 작가는 한국 추상화 선구자로 평가받는데 그의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등이 경매품에 포함됐다. 고흥출신으로 젊은 시절 광주에서 활동했던 천경자 작가 '미인도' 등도 경매로 나왔다.

지방세 미납금도 10억원에 달해 고액 미납자라도 오명을 올렸다.

서울시는 세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바 있다. 당시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김장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지난 2013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 중 검재 정선의 작품. 뉴스스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각각 공매해 총 69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당시 연희동 집권실에 있는 '취임사가 적힌 병풍'도 압류를 시도했으나 유리 벽에 둘러싸여 있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취임사가 적힌 병풍의 예상 가격보다 유리 벽을 해체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그림 2점이 공매로 매각 됐고 나머지 압류품들은 사실상 실익이 없었다. 취임사 병풍은 감정평가 결과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병풍을 둘러싼 유리벽을 해체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며 "나머지 미납 금액은 '전두환 회고록' 저작권료로 충당하려 했는데 초반에 무료로 배포한 권수가 상당해 추정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재 출판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아 저작권료 환수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두환 컬렉션'의 가치는 시장가 보다 떨어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광주 미술업계 관계자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두환 컬렉션의 경우 수집가 네임의 프리미엄이 붙는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관광재단, 광주관광 활성화 '작은연구' 공모

내달 13일까지 모집

광주관광재단이 지역관광 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광주관광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 문제를 발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재단이 올해 처음 진행하는 시민참여 연구 사업이다.

광주관광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에 관심있는 시민, 활동가, 연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주제는 지역관광 현실과 관련된 연구 또는 대안 제시로 광주관광실태, 수용태세, 데이터 활용 연구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비엔날레 관광실태, 아트투어리즘, 체류형, 야간, 미식관광 등 관광콘텐츠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면접, 관찰, 서베이

조사 등 주제에 맞는 연구방법을 구체화해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

재단은 심사를 통해 총 5개 팀(개인 또는 단체) 선정, 팀당 300만원~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5월~9월까지다. 선정자는 결과 발표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제안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주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오는 4월13일까지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민·관 거버넌스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 공모를 도입했다"며 "작은연구 제안 중 우수 정책은 내년 사업에 반영해 시민의 참여로 더 나은 광주관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

내달 20일 마감... 3팀 선정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4월20일까지 '제6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여성, 새로운 가족'이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담론에서 새로운 예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시각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며 공모전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허스토리상(1팀) 수상자에 상금 600만원, 최우수상(1팀) 상금 500만원, 우수상(1팀) 상금

400만원을 수여하고 여성전시관 전시공간 무상 지원,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영상 촬영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팀은 오는 4월 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발표 예정이며 전시는 오는 6월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진행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은 작가 및 기획자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고 있는 공모전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18팀을 선발하고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다. **도선인 기자**

음악인류학자 정추 특별전 연계 'ACC 테마강좌'

5월18일까지 둘째주 화·목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고 있는 정추 탄생 100주년 특별전 '나의 음악, 나의 조국'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ACC는 올해 첫 'ACC 테마강좌'를 정추 특별전과 연계한 박물관 문화교육으로 시작한다. 강좌는 굴곡진 근현대 역사 속에서 망명을 선택한 음악인류학자 정추 탄생 100주년 특별전과 연계해 △전시 기획자와 만남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과 노래 △정추의 음악언어로 구성했다.

강의는 오는 4월11일~5월18일 둘째주 화·목요일 ACC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 4·5에서 5차례 열린다.

다음달 11일 전시를 기획한 ACC 이해규 학예연구사가 정추와 예술적 교류를 가졌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추의 삶과 음악을 들려준다. 형 정준재(영화감독)

와 동생 정근(동요작곡가) 등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가미해 전시 이해에 재미를 더한다.

망명 이후 정추의 삶과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인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고려인 이산(korean diaspora)'의 흔적을 쫓아온 영화 '고려아리랑'의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소재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 이주 등을 통해 고려인의 삶과 문화를 되짚는다. 김병학 고려인문화관 결 관장은 고려인 사회로 들어가 그들의 음악을 기록하고 꽃피우는데 앞장 선 음악인류학자로서 정추를 조명한다.

5월에는 정추의 음악 이야기가 선보인다. 이경분(서울대 객원연구원)음악학자는 '정추의 음악언어와 망명'을 주제로 정추의 초기 교향악 작품을 소개하고 망명이 그의 음악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도선인 기자**

김보희 음악학자(연세대 국제학부 객원교수)가 '정추와 고려인 창작가요'를 화두로 정추가 남긴 고려인 창작가요를 들려주며 고려인 음악의 디아스포라(diaspora)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강좌를 계기로 정추의 음악과 그가 함께 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CC는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민족 음악가 정추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등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나의 음악, 나의 조국'을 오는 5월28일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1에서 선보인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이숙경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초청 강연

내달 3일 을 두번째 미술관포럼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미술관포럼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숙경(사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초청 강연을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연은 오는 4월3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광주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숙경 감독은 강연에서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게'를 친근감 있고 현장감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은 은유이자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공존과 연대를 추구한다.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전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6세 때 최연소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가 됐고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시티대학교 예술비평 석사, 예식스대학교 미술사 이론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역사

상 최초 동양인 큐레이터가 됐다. 이후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굵직한 전시 기획 및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키웠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뮤지엄의 새 정의를 검토하고 미술관의 역할과 의제를 모색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며 "이번 강연으로 현대미술의 이슈를 미리 접하고 작가와 예술감독 의도를 접하면서 비엔날레를 편하게 관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광주시립미술관 포럼은 매달 첫 번째주 월요일 개최된다. **도선인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